■ 그림 여행

태양 (The Sun c. 1911)

에드바르 뭉크 (Edvard Munch 1863 - 1944)

(캔버스에 유채 455 cm x 780 cm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는 1908년 가을에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당시 이미 유명 화가였지만 명성에 따른 시기와 질투, 노르웨이 언론의 부정적 보도,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죄의식, 친구들로부터 받은 주관적 관점의 배신감, 만성 불면증, 그리고 연인과의 불화에 기인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며 폭음을 계속했고 손발이 마비될 정도로 몸이 약해졌으며 이유 없이 싸움을 걸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병원에서 뭉크는 오랜 투병 생활을 했다. 스스로도 노력했으며 담당의사의 조언에 따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연작 시리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 준 '내면의 고통'을 그리는 대신 주위의 자연과 환경으로 관심을 옮겼고, 그 그림들을 그리는 동안 안정을 되찾았다. 8 개월 후 1909 년 4월에 뭉크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한다.

이 그림은 그가 퇴원 후 1911년에 그린 그림이다.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오슬로대학교의 대강당 벽화 제작 공모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된 후 인류의 생명과 영속성을 주제로 3 개의 대형 벽화와 8 개의 작은 판넬로 구성된 작품을 제작했다. '태양'은 그 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뭉크에 따르면 '영원의 강력한 힘'을 묘사했다.

말년에 이르면서 뭉크는 자연 속에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적 생명의 합일에 대해 자주 언급했으며, 그는 미술이라는 '응축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고 설파했다. 그림 속에 떠오르는 태양은 어둠과 고통을 뒤로 하고 찬란하게 승화하는 생명의 영원함을 나타냈다.

1947년부터 1989년 사이에 노벨 평화상은 오슬로 대학에서 이 그림을 배경으로 수여되었다. 수여식 장소가 오슬로 시청으로 옮겨 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 그림 앞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달라이라마였다. 달라이라마는 모든 생명은 하나이며 우리는 서로와 자연 속에서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수상 연설을 했다.

김 동백

한인이 운영하는 청소재료상 중 가장 큰

Brother's 청소재료상

Janitorial Supplies

가정용 청소기구 재료에서부터
큰 빌딩 청소 각종 기구,
재료까지 완벽하게 구비!

각종 청소기계 수리 전문!
최신 청소기계 재료 다량 확보

각종 새로 개발된 청소 약품
화장지 / 각종 종이 / 타일 / 대리석
카펫 샴프 기계 / 왁스 기계
최신형 장비 일절 구비

Open : Mon-Fri 9am-6pm / Sat 10am-4pm

(562) 920-9090
(562) 920-9595

Fax. 562-920-9596

16211 Bellflower Blvd. Bellflower, CA 90706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연말파티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 waiter, waitress 구합니다. *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